

김천지역 노인들의 음주특성에 관한 연구

이예종*, 이진우**

*김천대학 사회복지과

**다울사회복지연구원

e-mail: silvercare@gimcheon.ac.kr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s drinking in Gimcheon

Ye-Jong Lee*, Jin-Woo Lee**

*Dept of Social Welfare, Gimcheon College

**Daool Social Welfare Institute

요약

본 논문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의 음주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음주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노인은 10대부터 음주 경험이 있는 초기시작음주유형인 반면, 여자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음주를 경험하게 되는 후기시작음주 유형으로 나타났다. 음주를 하는 노인 중 40.6%는 정상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24.7%는 상습적 과음자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노인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때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려운 일이 해결된 것 같다'라고 응답하였다.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과 다르게 '기분전환이나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때 '우울해지거나 하소연하고 싶어진다'는 또 다른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1.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도들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노인들의 욕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여 노인인구 증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역할상실과 사회관계망 축소 등 다양한 생활사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노인에서 대부분의 급성 및 만성 내과 질병과 정신과 질병은 생활방식에 의한 영향을 받고, 이 가운데 알코올 섭취는 특히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정찬승,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조사에 의하면 알코올 의존으로 판정된 60-69세의 노인집단이 21.9%로 20대나 30대 그리고 40대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습관적 음주는 누구에게나 해롭지만

노인 건강에는 더욱 치명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감소하며, 알코올로 인한 부작용도 증가하므로 노인들의 음주습관은 그들의 영양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경희 외, 1996). 또한 남녀에 따라 음주양태나 알코올의 효과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lant, 1997; 유상현 200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노인음주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노년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노인음주에 대한 관심과 음주문제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의 음주와 음주문제에 대한 자료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이유와 음주효과, 음주정도 등의 음주특성을 파악하여 알코올 중독의 조기발견 및 음주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보건복지향상을 증진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자료 및 분석방법

김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들의 음주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기입방법과 면접을 통해 2008년 11월 10일~2008년 11월 21일까지 조사하였다. 수거한 설문지 350부 중에서 부적절한 42부를 제외한 총 308부를 연구 자료화하였다.

2.2.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spss win 1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순빈도(frequency)와 백분율(percentage), 교차분석(chi-square)을 실시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a로 하였다.

2.3. 조사도구

WHO(세계보건기구)가 일반인 대상으로 문제음주자의 초기 확인을 위해 간단하게 제작한 문제음주척도(NIAAA, 2003) AUDIT를 김용석(1999)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AUDIT-K를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40점으로 0점-7점이면 정상음주자, 8점-19점이면 상습적 과음자로 주의가 필요, 20점-24점은 잠재적 알코올 중독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이 요구되고, 25점 이상은 알코올 중독자로 전문적 입원치료 및 상담이 필요한 자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음주 척도의 Cronbach'a 계수는 .76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들의 음주관련 특성

전체대상자 중 음주를 하는 노인은 211명(68.5%)이었으며, 남자 158명(51.3%), 여자 53명(17.2%)으로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음주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66세-70세의 음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은 대부분 무직이었다. 남자 노인은 10대부터 음주 경험이 있는 초기시작음주 유형인 반면, 여자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음주를 경험하게 되는 후기시작음주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를 하는 노인 중 40.6%는 정상 음주자, 24.7%는 상습적 과음자, 1.9%는 알코올 중독자, 1.3%는 잠재적 알코올 중독자로 나타났다.

3.2. 음주이유에 따른 음주효과

음주이유에 따른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의 음주효과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노인은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기보다는 주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음주를 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고 그 효과로는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려운 일이 해결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경우 '기분이 좋아지고 어려운 일이 해결된 것 같다'와 '잠이 잘 오거나 신체적 고통이 사라진다'고 응답하였다($p < 0.01$).

반면 여자 노인의 경우 남자 노인과는 다르게 '기분전환이나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를 해결 받고자 음주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들이 이런 이유로 음주를 하고 난 후 그 효과에 있어서는 '우울해지거나 하소연하고 싶어진다'는 또 다른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p < 0.05$). 한편, 남녀노인 모두 생활스트레스로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울해지고 하소연하고 싶어진다'라고 응답하였다.

3.3. 음주정도에 따른 음주이유

음주정도에 따른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의 음주이유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노인들은 '기분전환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음주형태를 보였고,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상습적 과음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잠재적 알코올 중독자로 나타났다($p < 0.01$).

반면 여자 노인들은 남자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분전환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음주형태를 보였고, '생활스트레스'로 인해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상습적 과음형태로 나타났다($p < 0.05$).

3.4. 음주정도에 따른 음주기간

음주정도에 따른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의 음주기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노인들은 정상 음주자와 상습적 과음자의 음주기간이 각각 40년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10대부터 음주 경험이 있는 초기시작음주유형으로 나타났다($p < 0.01$).

반면 여자 노인들은 정상 음주자의 음주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상습적 과음자의 음주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평균 30대 이후에 음주를 경험하게 되는 후기시작음주 유형으로 나타났다($p < 0.01$).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노인들의 음주에 대한 인식제고와 예방대책 및 보건교육 방향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음주를 많이 하고 남자 노인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여자 노인은 ‘기분전환이나 생활스트레스’로 음주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음주이유는 음주정도에도 영향을 미쳐 상습적 과음자의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기분전환, 생활스트레스를 알코올에 의존하기보다는 여가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자 노인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음주를 시작하는 후기음주시작 유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김형수(2004)의 보고에 따르면 후기음주시작 유형은 중세파악과 예후가 조기음주시작 유형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처음 음주 동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예방대책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음주 습관과 사회문화적으로 음주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 알코올 중독의 조기발견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지영, 1998). 특히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서 음주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음주 영향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올바른 음주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노인 문제 음주를 예방할 수 있는 음주 교육이 필요하다. 음주에 관련된 문제는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여러 질환의 가능성,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음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건전한 여가활동과 음주생활을 위

해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관리 보건교육, 그리고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김형수, “미국 노인 문제음주와 예방대책의 연구 및 시사점”, 한국노년학회지, 제24권 제4호, pp.165-180, 2004.
- [2] 박지영, “알코올 중독 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3] 유상현, “음주와 사망 및 암 발생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4] 윤명숙·조혜정, “지역사회 노인의 음주행위, 문제음주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6권, pp.254-287, 2007.
- [5] 정찬승, “한국 노인의 음주 패턴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6] 한경희 외, “충북지역 노인들의 약물복용 및 영양 실태”,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 지방대 육성과제 연구보고서, 1996.
-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